“국·영·수 5등급 이하 쉬운 영어 A형을”

입시전문가들 조언… 6월 모의평가후 당락 결정 영어 유형 선택

오는 11월7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영어 A·B 유형 선택이 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영어의 경우 6월 모의평가 시험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유형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9일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들은 대다수 인문계는 국어B·수학A·영어B를, 자연계는 국어A·수학B·영어B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 60여 곳이 B형을 2개 요구하고 있는데다 A·B형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도 B형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하위권은 사정이 다르다. 국어와 수학은 인문계·자연계에 따라 A·B형이 정해지지만, 영어는 개인별로 유·불리를 따져 A·B형을 선택해야 한다.

영어 A형을 치르면 주요 대학 지원은 포기해야 하지만 성적이 최소 2등급 올라 A·B형을 모두 인정하는 학교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5일 실시되는 모의평가가 중하위권 학생들의 영어 A·B형 결정의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6월 평가에서 국·영·수 평균 5등급 이하면 영어 A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리하게 B형을 선택해 점수를 까먹기보다 A형을 택해 등급을 올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6월 모의평가를 거치면 영어 A형으로 갈아타는 수험생이 35~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영어 B형을 요구하는 전남대에 진학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은 지금 당장 A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학기초부터 A·B형 선택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영어 득점 수준과 지원 대학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어는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이 A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B형 지원자가 A형으로 바꿔도 상위 등급을 얻기는 어렵다.

또 올해부터 듣기평가가 폐지되고 듣기 대본을 제시하는 화법 문제가 나온다. 구어체 글을 많이 읽고 어려운 B형은 토론 논제와 쟁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문제 유형이 거의 같다. 따라서 수학 A형은 기존 수리 나형, 수학 B형은 수리 가형 문제집으로 대비하면 된다.

다만, 올해에는 하나의 수학적 상황을 제시하고 2개 이상의 문항을 출제하는 ‘세트형’ 문제가 도입된다. 때문에 다각도에서 문제 의도와 원리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영어는 듣기평가가 22문항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5문제가 더 늘어나므로 듣기 연습에 유의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까지 노린 ‘파밍’

가짜 사이트 유도 금융정보 빼내 사기 시도

법원 전자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A(여·32)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A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령을 청구하려다가 결정문이 위조됐다는 말을 들었다.

결정문은 채권·채무자, 주문 등 형식은 물론 “정본입니다”라는 문구 위에 법원 주사보의 도장까지 찍힐 만큼 완벽해 보였지만 결정문에 등장하는 법원 주사보, 사법 보좌관이 문서 작성일인 1월 27일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 독촉 신청을 하려고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전자 독촉 시스템’을 검색했다.

이어 대법원 전자 독촉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 A씨는 주소와 계좌번호를 입력,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아봤다.

그러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A씨는 실제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력 과정에서 인지대 등 명목으로 요구받은 30여만원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보이스피싱(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파밍=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나우in참

〈8785〉 김종두

장휘국 교육감 아직도 아파트 임대수익

2012년 국감때 “관사 폐쇄” 약속 5개월째 안지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관사에서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11월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마련된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관사는 60평형대 아파트로 연간 관리비 6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또 같은 동네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는 임대해줘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의 임대수입 사실은 지난해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감 직후 장 교육감은 “제기된 논란을 존중한다”며 “관사는 임대 또는 매각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장 교육감은 관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장 교육감은 18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장 교육감은 올해 재산이 4억5759만원으로 전년도 3억6825만원보다 8934만원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가격 상승, 봉급 저축, 배우자 연금 저축, 임대보증금 저축 등이 증가 요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이달 안으로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며 “향후 관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켜야할 광주교육수장이 약속을 어긴 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물더라도 약속은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 리조트 불… 투숙객 대피

주말 전남 곳곳 화재

화순 한 리조트에서 불이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등 전남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31일 오후 3시40분께 담양군 담양읍 산만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소나무·잡목 등 0.1ha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오후 6시10분께 나주시 다도면 다도댐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1ha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40분께 보성군 조성면 주택 옆 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20㎡가 불에 타고 비닐하우스 59.4㎡가 소실돼 764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아울러 이날 낮 12시10분께 완도군 약산면 박모(44)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79.2㎡를 태우고 소방서추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이날 오전 7시께 화순군 한 리조트 지하 1층 남성사우나에서 불이나 리조트에 투숙 중이던 손님 1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한편, 31일 새벽 0시30분께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입구 고가로도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나모(44)씨가 숨졌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도시텃밭 개장 광주 남구는 지난 30일 오전 양과동 힐링가든 일원에서 도시텃밭 분양자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텃밭’ 개장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돈되면 무조건 훔친다”

음악홀서 CC-TV 절도에 식당서 점퍼 입고 도주도

“돈되는 것이면 가리지 않고 훔친다.”

최근 광주에서 남의 사소한 물건까지 ‘슬쩍’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철제 파이프·우산·빈병·점퍼·TV 등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돈만 된다면 싹쓸이 해가고 있다.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 ‘생계형 범죄’가 느는 추세라곤 하지만, 개인 물품(?)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광주시 남구 지석동 야적장에서 김모(57)씨는 이곳을 지나던 중 컨테이너 박스 위에 있던 지름 3㎝·길이 4m의 철제 쇠파이프 50개를 자신의 1t 화물차에 싣고 달아났다.

이에 앞서 서구 금호동 A식당에선 이모(28)씨가 김모(44)씨의 점퍼를 입고 도주했다. 또 남구 주월동 B음악홀에선 이모(66)씨가 입구 천정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두 대를 훔쳐갔다.

이들이 훔친 장물 가격은 2만~10만원 정도. 이들 대다수는 훔친 물건을 되판 돈으로 생활비에 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전과도 없는 이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점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최근엔 사소한 물건까지 내 것인 것처럼 가져가 파는 일이 많은데, 이 또한 범죄행위”라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극락교서 장애인 투신

지난 3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극락교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A(35)씨가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4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A씨가 “힘들다”고 자주 말했다는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차에서 발견된 옷 때문에 성폭행 덜미

쌍나팔

○…심야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때문에 경찰에 덜미.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29)씨는 지난 28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김모(여·20)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검문 중 최씨의 속옷에서 차 키를 발견한 뒤 차에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흰 티·청바지 등을 발견.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